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에 폴리텍대학 나선다

-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시제품 설계·제작,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직업훈련 지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폴리텍대학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꿈드림공작소*’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조업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활용과 기술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장을 돕는다.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47건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폴리텍대학은 소진공의 ‘소공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상공인의 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도 서비스인 ‘소규모 사업장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은 전직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하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진공과 협력해 2021년 서울정수캠퍼스에 에어컨·가전제품 엔지니어, 소형

건설기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개설하고 약 100명 규모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직업훈련과정에 소상공인 입학 자격을 확대한다. 입학 자격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대학의 공공 인프라와 직업훈련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담당 부서	전략홍보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차 장	이채민 (032-650-6742)
담당 부서	교육훈련국 학사부	책임자	부 장	최민환 (032-650-6640)
		담당자	교 수	조성덕 (032-650-6744)



□ 일 시: '24. 4. 4.(목) 10:50~12:00

□ 장 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인천 부평구)

□ 참석자

- (폴리텍) 이사장직무대리, 기획국장 직무대리, 교육훈련국장 등
- (공 단) 이사장, 상임이사 등

□ 주요 협약 내용

- 대학의 '꿈드림공작소'를 활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교육, 시제품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신규 제품 개발 지원
- 대학의 '소규모사업장훈련'과 공단의 '소공인지원센터(특화·복합)'를 통해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 전직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학의 '전문기술과정' 입학 협력

□ 세부 행사 일정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10:50~10:55	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55~11:05	10'	■ 양 기관 대표 인사 말씀
11:05~11:15	10'	■ 양 기관 홍보영상 시청
11:15~11:20	05'	■ 협약 주요내용 소개 및 업무협약 체결
11:20~11:30	10'	■ 기념 촬영
11:30~12:00	30'	■ 폐회 및 인천 꿈드림공작소 시설 견학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